

'영화 사랑' 28년 한결, 같다

'영화, 톱다...' 출간 조대영씨



‘한결같음.’
그를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말이다. 아마도 그를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곳곳했던 청년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으로 변했지만 말이다. 조대영(51). 그는 광주 영화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1990년대 초반부터 영화감상회·강좌·워크숍·영화제를 진행했고 올해 7회를 맞는 광주독립영화제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의 첫 책 발간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제일’처럼 기뻐했던 건 아마도 28년만의 뒤늦은 첫 책이 그 특성과 진정성의 산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터다.



지난 1991년부터 영화 읽기 모임 등을 진행해온 조대영씨가 5만여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된 자신의 아지트에서 포즈를 취했다. 28년간 광주 영화계를 이끌어 온 그는 첫 책 '영화, 읽기'를 펴내고 5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최성욱 다큐 감독

1991년 동아리 ‘굿펠라스’ 조직...광주독립영화제 만들어
영화읽기·강좌·워크숍...특심으로 좋은 영화 알리기 한 길
비디오 테이프 5만개·서적 2만권 “영화도서관 만들 것”
130편 영화평 엮어...내일 독립영화관서 출판회·다큐 상영

조대영이 책을 이룬데다, 영화제 방문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이들이 고객이라 300만~400만원 어치를 팔고는 했다. 걸어서 10분 거리, 또 다른 건물 지하에는 2만여권의 책과 2000여장의 DVD를 보관중이다. 두 곳은 “언젠가 영화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그의 꿈이 머물고 있는 ‘보물 창고’다.
‘영화인 조대영’의 시작은 1991년 방위병 시절이다. 퇴근 후 술마시고 놀 게 아니라 영화보며 이야기를 나누자 싶었다. 그때 처음 함께 본 영화가 현대극장에서 상영한 마틴 스코세지의 ‘굿펠라스’였고 영화 제목은 모임 이름이 됐다. 제대 후 동아리방을 만들어 ‘굿펠라스 영화읽기’를 시작했고 시민 대상 영화 상영제로 이어졌다. 1994년 페미니즘 영화제를 시작으로 컬트 영화제, 환경 영화제를 열었고 정성일·박찬욱·변재만·변영주 등을 초청해 강좌도 진행했다.
그에게도 ‘제도권 시절’이 있었다. 2007년 광주시정자미디어센터 창립멤버로 들어갔지만 3년 7개월만에 다시 ‘뿔겨져 나왔고’ 그 때 광주독립영화제를 꾸무기 시

작했다. ‘굿펠라스’ 시절부터 그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영화 보고 토론하는 모임을 지속해왔다. 소설과 영화를 함께 읽는 ‘20세기 소설영화독본’은 200여권의 책과 영화를 읽고 읽고 있으며 ‘무소영(무등도서관에서 소설과 영화를 만나다)’ 역시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하정웅미술관에서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를 통해 고흐 등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보고 토론했다. 남구 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20회 과정으로 ‘인문학, 영화에 빠지다’도 진행했다.
“생활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영화라는 게 날 늘 자극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할 겁니다. 나를 성장시킨 건 영화였고, 지금도 나를 성숙시키는 건 영화입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예요.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게 담겨 있죠. 영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가는 큰 아이 등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에게 늘 ‘생활’보다 ‘영화’가 우선이었고, 그 짐을 함께 나눠진 건 아내와 어머니였다. 그는 책 서문에

두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램머로 활동중인 그가 바라보는 요즘의 영화 관람은 어떨까.
“영화 탄생 100년이었던 1995년 즈음은 영화 관람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답론이 차고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땀 한 감독에 쫓기면 전작을 찾아 관람하고 비디오 오수를 뒤져 영화를 찾아봤죠. 하지만 지금은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는 영화만을 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화사의 고전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영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조대영이라는 사람이 미약하지만 그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전고투하며 광주의 영화판을 지켜온 그에게 최근 지역 스태프들이 참여한 허지는 ‘이경호 감독의 ‘신기록’이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건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셔서
그가 100% 신뢰하는 감독은 홍상수와 이장동, ‘보이 후드’의 리처드 링클레이터, 켄 로치, 다르렌 형제, 짐 자무쉬 감독이다. 책 말미에 실린 ‘2018 베스트 10’을 살펴보니 관련한 영화는 ‘딱 한번’이었다. 그의 안목을 믿고 그의 추천작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새로운 영화 보기’의 꽤 근사한 출발일 것 같다. 문의 062-222-189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색의 ‘남도 향기’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5일까지 장복수전



'봄·여름·가을'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김왕식)이 한국화가 목경(默耕) 장복수 작가를 초청, 오는 15일까지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

‘남도의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장 작가는 남도의 풍광을 검은 먹빛과 화려한 채색이 어우러진 한국화 작품으로 선보인다.

40년간 화업을 일궈온 장 작가는 들뜬 한가로이 풀을 뜯는 누렁이 황소, 모든 걸 내어주는 어머니, 이웃의 모습 등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작은 좀 더 추상성을 가미,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남도의 바람소리’, ‘영산강 바람소리’는 청각적 느낌을 대담한 시각적 이미지와 색감으로 제시해

인상적이며 사시사철 남도 풍광 역시 세세한 사실 묘사 대신 단순한 선과 색감으로만 표현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먹의 번짐을 활용함은 물론 황토, 돌, 나무, 천연염색 재료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나주 출신인 장 작가는 복암리 고분군이 바라다보이는 복암리 한옥 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산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장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한울회, 동방예술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1-335-009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질서를 상상하다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첸 12일까지 강동호전



'내겐 너무 좋은 세상'

김재준·윤보연 작가의 작품전을 진행했던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첸이 레지던시 프로그램 마지막 전시로 강동호 작가전을 오는 12일까지 개최한다.

‘상상하다 (IMAGIN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다양한 속에 얽혀있

는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강 작가의 작품은 자유롭게 그려낸,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한 화면에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상한 모습의 외계인이나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상상속에서나 만날법한 주인공들이 어우러지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낙서하듯 그려낸 이미지의 나열 속에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질서가 자리하며 무엇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해낸 개성 있는 소재들이 유쾌하다.
강 작가는 2018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선정돼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